

“10년 지켜온 무료급식소, 앞으로도 쪽~”

민들레밥집, '효심밥상'으로 재탄생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에서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집'을 탁발로 운영하던 두타 스님에 대한 이종생활이 전과를 닦다. 가짜스님인데다 급식소 운영비를 유혹비로 쓰는 모습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무료급식소를 애용하던 어르신들. 두타 스님이 자취를 감추고, 급식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자 부산불교연합회와 친구 사회복지협의회, 세상을향기롭게가 뜻을 모아 10여 년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폭적인 후원을 받지 못해 최근 운영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범어사 금강암 도감인 효문 스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부산불교계는 4월 26일 무료급식소 '민들레밥집'을 '효심밥상'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었다. 이날 진행된 개소식에는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과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소식은 기념 테이프 절단식과 점안법회, 축사 및 인사말, 범어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효심밥상을 이끌어갈 효문 스님은 “평소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복지

학을 공부하던 중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소임자를 찾는다는 말에 맡게 됐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하듯 어르신 공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자인 스님은 효심밥상 개소를 축하하며 무료급식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스님은 “밥집의 원력이 끊어지지 않고

부모 공양 올리듯 효심으로

어르신들 주 5회 공양 대접

월 운영비만 400만원 소요

“많은 이들의 관심 절실해”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낸 효문 스님의 뜻이 빛난다”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 회향 공덕을 이어나가고, 사부대중도 그 뜻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정여 스님은 범문을 통해 “효문 스님이 낸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고 행복을 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란다”고



부산불교계는 4월 26일 동래구에 위치한 효심사에서 무료급식소 '효심밥상' 개소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이 기념테이프를 절단하며 축하하는 모습.

격려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부산불교계가 합심해 땅을 갈고 거름을 주며 가꾸듯 이곳을 지켜왔다. 효심 스님은 잘 갈무리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효심밥상은 앞으로 휴일을 제외한 매주 평일 오전 11시 30분 무료급식을 시작한다. 현재 지역민을 포함해 범어사 금강암 신도까지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점심공양을 위해 찾은 어르신들은 100여 명이지만 매일 200인분을 마련한다. 저녁에도 끼니를 해결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는 소식에 효문 스님이 공양을 넉넉하게 마련한 것. 이 모든 제반시설 운영을 위해 한 달 동안 필요한 운영비는 약 400만원이다.

효문 스님은 “개소식 두 달 전부터 운영자금은 개인 사비로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밥집을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후원계좌 농협 356-1109-8015-93(예금주:김석교)/(051)558-2108

하성미 기자

천불정사 “장기기증으로 기도 회향”

인재불사도량 부산 천불정사(주지 고담)가 '49일 기도 회향'을 맞아 장기 기증 운동에 동참했다.

천불정사는 4월 26일 경내에서 '유주 무주 고혼 49일 기도 회향식'을 봉행했다. 이날 참석한 재가자들은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에서 진행하는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고 기도회향의 참된 나눔을 실천했다.

주지 고담 스님은 “방생 가운데 사람을 위한 나눔 방생인 생명운동 실천에 동참하고 고통 받고 아픔에 시달리는 이웃 중생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불교계에 나눔을 강조하고 이끄는 견인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천불정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함께 자비의 쌀 20kg 백미 50포를 (사)생명나눔부산지역본부와 '장전3동 주민센터'에 기증했다. 자비의 쌀은 각각 불우이웃과 난치병 환자에게 전달된다. 하성미 기자

“불상 조성으로 부지런히 정진하자”

대응공사, 문수보현협시불 및 원불조성 점안법회

‘육바라밀 보시행 실천도량’인 대구 대응공사 자혜불교대학(학장 도경)은 4월 23일 경내 큰법당에서 ‘문수 보현 협시불 및 원불조성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법회에는 해동종 종정 해봉 스님, 동국선원 광진·진행 스님, 장덕사 청암 스님, 통도사 포교당 선구 스님, 해운정사 정명 스님, 등대사 청암 스님, 광명사 성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홍 신당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증명법사로 나선 해봉 스님은 “세상사 인생이란 영원하고 고정된 것



이 하나 없으니, 부처님전에 부지런한 정진만을 참되게 닦아가는 인생관을 세워야 한다”고 범문했다.

내빈축사에 이어 도경 스님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2곳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취임식 개최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4월 26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내빈소개 △이임사(이윤희 3대 회장) △회기 전달 △감사패 전달 △자비의 쌀 1톤 전달식 △취임사(박대성 4대 회장) △축사 △범어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박대성 신임회장은 “삼보를 존경하는 불심을 확립하고 화합과 결속으로 불자가 하나 되는 연합신도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동참과 격려를 부탁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장 정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 정사를 비롯해 서병수 부산시장,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특히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참석했으며 법문으로 부산 불자들에게 정진과 포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새 장엄등에 봉축기운 담아요!”

삼광사, 4만여 등 밝혀

통도사, 물고기등 수놓아

부산지역 각 사찰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행사 준비가 한창이다.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는 4월 27일 지관전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는 슬로건 아래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봉축점등법회를 시작으로 경내를 수놓은 4만여 개의 등에 불을 밝혔다. 동물등·사천왕등·범종등·범고등·나한등·탑등·봉황등 등 화려한 장엄등이 장식됐다. 특히 올리는 공중에서 움직이는 반야용선이 새롭게 선보였다. 아울러 삼광사가 백양산 자락에 조성한 힐링숲길에 등불이 밝혀져 지금까지와는 다른 매력을 더했다. 삼광사는 또한 5월 13~14일 힐링치유문화한마당을 열고, 힐링다도·명상·운동처방·페이스페인팅·투호던지기·들차회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토크콘서트, 문화공연을 펼친다. 점등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4월 27일 부산 삼광사 봉축점등법회에 참석한 내빈이 점등하고 있다.

과 총무원장 준광 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문 혜종 스님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통도사(주지 영배)는 진주시(시장 이창희)와 지난 1월 유등축제 문화교류 MOU 체결 후 더욱 화려한 등으로 경내를 장엄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장엄등은 일주문 맞은 편 청류동천을 따라 50여 개가 설치된다. 연등뿐 아니라 통도사는 물고기등 2000여 개도 새롭게 설치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도문 스님은 “(화엄

경)에는 장대교광 녹인천어(張大教網 人天魚)라는 가르침이 나온다.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사람들과 천신들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다는 의미로 중생을 열반의 도리를 알게 하고 힘을 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4월 28일 양산운동장과 응상출장소에서 봉축탑을 점등을 시작했다. 경내는 5월 7일 오후 7시 연등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등을 밝혔다. 14일 오전 9시에는 봉축불공을 대웅전에서 진행하며 봉축법요식은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봉행된다. 하성미 기자

선덕여왕 송모회 문화다례제

불교를 진흥했던 선덕여왕의 호국정신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열렸다.

선덕여왕 송모회(회장 권대자)는 4월 15일 대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제30회 선덕여왕 송모 문화다례제'를 개최했다. (사진)

행사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류병선 대구불교총연합회 신도회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동희 시의회의장,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선덕여왕 송모 문화다례제는 각계의 축사와 격려사에 이어 헌다와 헌화, 궁중음악 등의 제례의식으로 봉행됐다. 특히 황룡사 호국의 탑 세우기 퍼포먼스를 통해 황룡사 9층 석탑과 분황사, 기림사 등 많은 사찰을 장건해 불교를 숭상하고 국민민안을 이뤘던 선덕여왕



의 호국불교 정신의 뜻을 되새겼다.

권대자 선덕여왕 송모회장은 “선덕여왕님은 불법의 힘을 빌려 왕대의 명승이신 원광법사, 자장율사, 대안대사, 원효대사 등 여러 훌륭한 대승자를 모시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초석을 다졌다”고 말했다.

한편 선덕여왕이 강건한 팔공산 부인 사도 21일 경내에서 전통 불교의식으로 송모제를 봉행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